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양대산맥



‘노벨상 단골손님’ 일본 기초과학 지원 주목해야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으로 일본 기초과학 육성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일본의 다양한 신진연구자 지원 제도에 주목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원장이준승)은 15일 ‘일본의 기초연구 진흥정책과 산·학·연 역할분석’ 보고서에서 일본의 다양한 기초연구 육성정책과 국가 기초연구 활성화에 대한 대학, 연구소, 기업의 역할 및 신진 협력시스템 등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일본에서 노벨상 수상의 계기가 된 논문발표 시기는 주로 30대가 많아 연구초기 지원이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따라서 일본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대학원 특히 박사후 과정에 대한 정책 및 자금지원 확대방안이나 신(新) 테뉴어 트랙제도 등을 우리나라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발행 2007년도 과학기술백서에 따르면 1986년에서 2006년까지 노벨 화학, 물리, 생리·의학상 수상자 137명 중 48%에 해당

하는 66명이 30대의 연구결과로 수상했다.

무엇보다, 2009년 현재 34개 일본 대학이 실시중인 신 테뉴어 트랙제도는 신진연구자의 초기 일자리와 연봉을 정부가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대학과 연구진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 제도는 대학에 채용되는 신진연구자를 국가가 결정해 3~5년 연구비와 급여를 지원해 해당 대학에서 독립적인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후에도 대학이 독자적으로 최종 장년직 채용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연과학 신진연구자 20%에 대한 정보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기초연구는 장기적 방향성을 가진 산·학·연 각각의 노력에 의해 활성화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즉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은 각각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기술혁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페이스북 vs 트위터 ‘광고 효과’ 승자는?

끌어당기는 중간자 ‘팔로워’... 브랜드 로열티 형성 가입자 5억5000만명 ‘팬’...지인들과 브랜드 공유

‘페이스북의 팬 vs. 트위터의 팔로워’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인터넷판은 향후 트위터의 ‘팔로워’가 페이스북의 ‘팬’보다 더 많은 잠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시장조사기관 포레스트의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양사의 가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구매할 때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팔로워하는 브랜드를 사겠다고 답한 경우가 37%인데 비해 페이스북 팬은 21%에 그쳤다. 또 친구들에게 추천할지를 물은데 대해서도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각각 33%와 21%였다.

이 두가지 질문이 브랜드 홍보의 척도가 되는 만큼 트위터가 더 많은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브랜드 홍보의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 일단 미국 1억6500만명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가입자 수가 5억5000만명나 되는데다 지인들 사이에 브랜드 등을 공유하는 강력한 네트워크 장소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상호작용을 위해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팬들과 연결된다는 점이 어렵다. 미국의 소셜네트워크기업회사인 징가

는 자사의 게임 ‘팜팜’팬들을 확보하기 위해 팜팜이라는 보상을 이용한다는 것.

하지만 나이키처럼 페이스북의 문화 속으로 스며들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다. 흥미진진한 비디오 경연을 이용해 2010 월드컵을 위한 나이키의 글로벌 상업광고 ‘미래를 써라(Write the Future)’는 페이스북에 무려 900만개의 코멘트가 달렸다. 유튜브의 관련 동영상은 2000만건이나 재생됐다.

이에 비해 트위터는 ‘끌어 당기는(pull)’ 중간자 역할을 한다. 트위터의 팔로워들은 기업의 브랜드들을 칭찬하거나 불만을 얘기함으로써 먼저 대화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이는 부정적인 것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브랜드들에 나쁜 상황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브랜드의 로열티를 형성하게 해준다는 것.

미국 전자제품 소매업체인 베스트바이의 고객지원센터 트웰프포스(Twelforce)는 고객 대상으로 3만2000건 이상의 답변을 해줬으며 트위터 상에 3만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다. 포브스는 “성공적인 소셜미디어의 전략을 금전적인 가치로만 따질 수 없지만 이들이 지닌 타고난 장점 등을 이해하는 데는 유용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 밸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선호도를 표시하는 ‘라이크(Like)’ 버튼 기능을 자사의 검색 엔진에 통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23억년전 산소급증사건 주범은? “식물”

생명의 폭발적 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소첨가 현상이 지구의 바다와 대기권에서 처음 일어난 것은 식물 때문이라는 국제적인 연구가 나왔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보도했다.

미국, 덴마크, 스웨덴, 영국 학자들로 구성된 국제 연구진은 약 4억년 전 대형 포식종 어류와 관다발 식물이 등장한 시기에 비로소 산소 농도가 오늘날과 같은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미국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했다.

해버드 대학의 타이스달 박사(가이그)는 연구진은 예리조나주립대(ASU)의 아리엘 안바 교수가 개발한 첨단 기법을 이용해 이른바 ‘현생대’(顯生代)로 알려진 5억5000만년 전 이후의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데 성공했다.

안바 교수는 “생명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인 지난 5억년간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일정했는지, 아니면 변화가 있었는지를 큰 관심사였다. 이 시기는 동물과 육지 식물이 등장해 번성한 때이다. 이 연구는 산소 농도가 다양한 수준으로 변화했음을 시사할 뿐 아니라 이런 변화가 복잡한

생명체의 진화에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5억년의 지구 역사를 통틀어 바다에는 늘 미생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23억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중 산소 농도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때까지는 바다의 미생물이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양은 대기와 바다에 축적되기에는 불충분했다.

이런 사정이 바뀐 것은 23억년 전에 일어난 ‘산소 급증사건’(GOE)이었으며 이 때 약 5억5000만년 전에 다시 산소 증가 현상이 일어났다.

/연합뉴스

“물고기가 지구 최초의 섹스 즐겼다”

암수가 몸을 밀착한 교미를 처음으로 한 것은 약 4억~4억1000만년 전 때문 기 초기의 물고기였음이 호주에서 발견된 화석으로 입증됐다고 디스커버리 채널이 보도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자연사박물관의 존 롱 박사 등 연구진은 호주 서부의 고지층에서 매우 잘 보존된 상태로 발견된 멸종 판피어가 “단지 물 속에 알을 낳아 수정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즐거운 섹스를 했음”이 분명하다면서 이는 이

물고기의 턱 모양으로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턱은 먹이활동을 위해 처음 진화한 것이 아니라 교미형 짝짓기를 더 손쉽게 하기 위해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롱 박사는 “이 멸종한 판피어의 화석은 수컷이 매우 잘 보존된 상태로 발견된 멸종 판피어가 “단지 물 속에 알을 낳아 수정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즐거운 섹스를 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뇌파로 움직이는 자동차 1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막을 내린 한국전자산업대전 내 뉴로스카이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뇌파를 이용한 자동차 작동 시스템을 둘러보고 있다.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영문					대표이사 010-7570-7525					숙박/재개발					경의시 010-5879-0005					광장/토지					김태호전문이사 011-684-3886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	회차	비고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	회차	비고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	회차	비고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	회차	비고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	회차	비고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	회차	비고															
계림동	대542,29368	35933㎡	1911년	8층빌딩	우원동	대195,25004	495㎡	3922년	4층주택	계림동	대195,25004	495㎡	3922년	4층주택	계림동	대272,29444	20933㎡	1194년	2층공장	계림동	대272,29444	20933㎡	1194년	2층공장	계림동	대272,29444	20933㎡	1194년	2층공장	계림동	대272,29444	20933㎡	1194년	2층공장	계림동	대272,29444	20933㎡	1194년	2층공장	계림동	대272,29444	20933㎡	1194년	2층공장

아파트/빌라 영희승합장 010-3626-0820 **주박/재개발** 영희승합장 010-3626-0820 **근린주택** 김태호전문이사 010-8033-0114

병원, 교회, 사육, 모델, 상가 등 원하시는 부동산을 접수해 주시면 가장빠른시간안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찾아드립니다. ■ 상담 및 접수 010-7570-7525

「부동산경매 전문가과정」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2학기(15주) ■ 실전경매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직정인, 주부, 금융권 임직원 ■ 상담 및 서류접수 236-3400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매신문지사, 매수신청대리업체 (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다가구주택 • 광산구 신창동 대지 68평 3층 신축건물 3억 3천만

근린주택 • 남구 봉선동 대지 41평 3층 상가주택 1억 5천만

전원주택 • 광산구 삼거동 대지 245평 건물111평 전망좋은 투자적합 7천 3백만

상가및사무실 • 나주시 이창동 대지107평 건물 140평 1층상가, 사무실 2층 다가구주택 1억 4천만

상가건물 • 동구 지산동 대지 143평 5층건물 7억 9천만

기타토지 • 회순읍 연안리 대지 177평 1억 5천만

▶이외 상담물건, 신평 다양보증, 소액투자상담
광주 서구 마곡동 도시철도공사 부근
T. 010-4911-4989 FAX. 062-376-6611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동신대 ~ 나주 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복합지부동산

광주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 금매

현대 "힐스테이트" 전망 좋은 옥탑 방 금매 (192㎡ 58py)

- 총 분양가 • 5억 6천 136만
- 계약금 • 5613만원 납부
- 매매가 • 주인사정상 싸게 금매

☎ 062) 364-1613
☎ 010-9005-2223